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6년 4월 1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2026 WEC> 공식 참가

- WEC 개막전 이탈리아 ‘이몰라 6시간’ 에서 공식 데뷔... WEC 총 8개 레이스 참가 예정
- 글로벌 모터스포츠 챔피언십 우승 경험과 각 분야 전문성 갖춘 레이싱팀 라인업 완성
- GMR-001 하이퍼카 공식 리버리 2대 공개... 전용 엔진 ‘G8MR 3.2L 터보 V8’ 탑재
- 제네시스의 ‘역동적 우아함’ 반영한 디자인에 타극기 등 한국적 정체성 표현한 리버리 적용
-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레이스를 완주하는 게 목표... 단계별로 목표 끌어올릴 것”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이번달 열리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 WEC 에 공식 출전한다.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현지 시각으로 4 월 17 일부터 4 월 19 일까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에서 열리는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 시간(6 Hours of Imola)’ 레이스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Hypercar)’ 클래스에 첫 공식 참가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WEC 첫 대회인 이몰라 6 시간 레이스를 시작으로 연내 치러지는 WEC 8 개 일정을 차례로 소화할 계획이다.

2024 년 12 월 두바이에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을 최초 공개한 제네시스는 프랑스 르카스텔레(Le Castellet)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499



PRESS RELEASE

일에 걸쳐 자체 엔진 개발 및 레이스 운영진, 드라이버 라인업 구성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외부 팀과 기술 및 인력을 교류하는 파트너십 형태가 아닌 차량 개발과 운영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일 제조사 팀으로 WEC 에 나선다.

WEC 공식 데뷔를 앞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챔피언십 우승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정예 드라이버 라인업을 구축했다.

첫 공개 당시 공식 드라이버로 소개된 안드레 로테러(André Lotterer), 피포 데라니(Pipo Derani)와 함께 ▲마티스 조베르(Mathys Jaubert) ▲다니엘 훈카데야(Daniel Juncadella) ▲마티유 자미네(Mathieu Jaminet) ▲폴-루 샤탕(Paul-Loup Chatin) 등 총 6 명의 드라이버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소속으로 WEC 에 참가한다.

드라이버 외에도 16 개 국적, 총 75 명으로 이뤄진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모터스포츠 전 영역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WRC 등 글로벌 대회에서 경험을 쌓은 현대 모터스포츠 인원들도 합류했다.

제네시스는 2026 WEC 에서 브랜드 기술력과 미학적 정체성을 집약한 ‘GMR-001 하이퍼카(GMR-001 Hypercar)’ 리버리(Livery,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랩핑이 더해진 차량) 차량 2 대를 대회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모터스포츠 최상위 레벨 레이싱카로 제작된 GMR-001 하이퍼카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의 현대 모터스포츠 인라인(In-Line) 4 기통 엔진을 기반으로 제작된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전용 엔진 ‘G8MR 3.2L 터보 V8’을 탑재했다.



PRESS RELEASE

이 엔진은 지난해 2 월 첫 개발된 이후 약 2 만 5,000km 에 달하는 테스트 주행과 내구력 테스트 등을 거치며 성능을 입증했다.

시릴 아비테볼(Cyril Abiteboul)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은 "WRC 에서 활약한 현대 모터스포츠의 엔진을 기반으로 한층 강력한 고성능 엔진을 개발한 것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GMR-001 하이퍼카는 G8MR 3.2L 터보 V8 엔진을 비롯한 제네시스 자체 제작 파워트레인에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한 '투 라인 헤드라이트' 및 '제네시스 왕 로고'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태극기 문양과 마그마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ㄹㄱㄹ' 로고, 제네시스 마그마의 시그니처 색상인 오렌지 컬러 등을 통해 GMR-001 하이퍼카의 정체성을 살린 리버리를 완성했다.

현대차그룹 CDO(글로벌 디자인 본부장) 겸 CCO(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우리의 디자인 철학을 순수한 퍼포먼스로 승화시킨 집약체"라며 "마그마라는 단어를 한글 자음으로 리버리에 표현하는 등 한국의 뿌리와 유산을 존중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앞서 지난해 4월 WEC 실전 테스트 격인 '유로피언 르망 시리즈' 개막전에서 LMP2 클래스 우승과 함께 전체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뒤이어 열린 제 2 전에서는 LMP2 클래스 두 번째 우승과 전체 1 위를 기록했으며, 같은 해 9 월 제 5 전에서 LMP2 클래스 세 번째 우승과 전체 1 위를 차지하는 등 실력을 입증해 왔다.



PRESS RELEASE

제네시스 관계자는 "이번 WEC 시즌 첫 번째 목표는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문제없이 레이스를 완주하는 것"이라며 "이후 레이스에서 단계별로 목표를 끌어올려 상위권 진입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WEC 최종 준비 돌입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이번달 열리는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6 WEC 에 공식 출전한다.

사진 1) GMR-001 하이퍼카와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드라이버들

사진 2~4) GMR-001 하이퍼카